불교계, '국가부도' 스리랑카에 인도적 지원

해외교구 미중서부 7개 사찰 총무원장 스님에 9270달러 아름다운동행, 11월까지 모금 마하위하라, 마을 식료품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미중서부해외지회는 10월 11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스리랑카 구호기금 미화 9270달러를 전달했다.

국가부도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해 불교계가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장 생계에 필요한 식료품부터 의학품까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해 불자들이 적극적인 기금 모연에 동참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이 일고 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미중서부해외지회는 10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스리랑카 구호기금 미화 9270달러(약 1270만 원)를 지정기탁 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스리랑카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미중서부해외지회 7개 사찰이 자발적으로 긴급 후원 모금을 실시, 마련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LA 지역 사찰인 반야사, 고려사, 달마사, 한마음선원, 우리절, 법왕사, 금강선원을 비롯해 재가단체인 보리선우회, LA 거주 스님들, LA포교사단, 그리고 불자들은 9월 중순, 조계종이 스리랑카를 위한 쌀 모금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금운동을 펼쳐왔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먼저, 배석한 LA고려사 주지 묘경 스님과 텍사스 달라스 보현사 주지 지암 스님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해외교구를 지원해야할 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LA고려사 주지 묘경 스님은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의 상황을 듣고 열심히 기금을 모았다"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모연금을 활용,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쌀과 렌틸콩, 소금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재한 스리랑카 법당인 아산 마하위하라사원(주지 담마끼띠)을 통한 현지 사원 보급 △조계종 복지타운을 통한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지난 7월,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필수의약품을 전달한 재한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 사원은 2차 필수의약품 전달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 보건국에 다시 한 번 긴급처치를 위한 시급 의약품 리스트에 대한 협조를 구한 상태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의약품뿐 아니라 식량 위기로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10여 개 마을을 선정, 약 500인분의 식료품을 스리랑카 내 사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지원금은 현재까지 2000여만 원에 달한다.

담마끼띠 스님은 "재한 스리랑카인 및 한국불자들의 보시금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기금이 모이는 대로 지원 마을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모연 중이다. 기업은행 641-042679-04-016 (사)마하위하라.

한편 스리랑카는 지난 2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대통령 교체, 물자 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처한 상태다. 아름다운동행은 11월까지 쌀과 렌틸콩, 소금 등을 전달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불교계 전반에서 펼치고 있다. 농협 301-0315-9664-31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문체부 "신안군 천사섬 사업은 종교차별"

10월 6일 조계종 종평위에 회신 신안군측에 시정·재발방지 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천사섬' 브랜드사업에 대해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004섬 신안'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조성된 예배당 순례길, 12사도 조각상 설립 공원 등에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홀리랜드 사업' 등에 대한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10월 13일 "문체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10월 6일 회신을 통해 신안군의 천사섬 브랜드 사업은 특정 종교적 색채가 부각되며, 이는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올해 4월 12일과 8월 17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신한군의 기독교편향 사업을 신고했다.

조계종 사회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신안군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천사섬' 브랜드사업은 특정종교적 색채가 부각됐던 바,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추후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신안군에게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수립 및 추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신안군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군내 도서에 공적자금으로 기독교 선교사업을 정책으로 채택,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004섬 신안'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점소악도에 십자가와 함께 12사도의 명칭이 달린 예배당을 건립하고 순례길을 조성했다. 병풍도에는 십자가가 12사도 조각상이 세워진 공원이 조성됐으며, 임자도에 '홀리랜드 사업' 일환으로 기독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군비 95억 원을 책정한 상태다. 성시화로 추정되는 사업에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조계종 사회부는 개신교 편향적인 사업을 민간의 주도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종교 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안군 측은 "종교편향은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해 빈축을 사왔다.

문체부의 판단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다시는 종교편향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 경제 활성화·지역공동체 실현 기대"

조계종 사업부, 10월 12일 사회적기업 포럼

사찰 사례 토대로 발전 모색
불교네트워크 추진위도 발족



"사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동기 부여뿐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에도 동참할 수 있었죠."

지구사랑 작은실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혜눌 스님이 조계종 사업부(사업부장 주혜)가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불교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포럼' <사진>에서 사례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한 사찰 사례를 통해 불교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작은실천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월암 마인드푸드 협동조합이 발제자로 나서, 설립과정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지구사랑 작은실천은 한마음선원이 2018년 EM지구사랑작은실천 승가결사체를 조직한 후 조계종 사업부의 컨설팅을 받고 2022년 1월 설립했다. EM스마트 발효기 특허 2종은 현재 학교 등 187개 지역공동체에서 사용 중이다. EM친환경제품은 사찰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마인드푸드협동조합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찰건강밥상'을 모토로 건강한 식문화 보급 및 사찰음식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발표 후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박주언 사람과사회적경제 센터장, 윤종헌 사람인협도조합 이사장, 강경환 사회적기업 눈 대표가 나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스님과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 차원의 주기적인 권역별 교육 실시 △사회적경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사찰 발굴을 통한 개별 수익 모델 판로 확보 △지자체, 종단과의 연계 방안 모색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집중 컨설팅 및 지원 실시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조계종 사업부는 사찰기반 불교사회적경제기업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협의체 추진위를 발족하기도 했다. 사업부는 협의체 추진위를 기반으로 불교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사찰 간의 협력과 협업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사찰과 신도단체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실현은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 실천적 가르침과도 상통하며 불교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경제여건 확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발제와 담론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정신을 불교적 가치와 정신에 비춰보고 이를 통해 불교공동체 속에 뿌리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는 지난 4년간 사람과사회적경제와 함께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총 26여 개 사찰 및 기관에 컨설팅을 지원했고 7개 사찰과 기관에서 협동조합 등을 창업했다. 또 3개 사찰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불교 저변확대에 성과를 이루고 있다.

임은호 기자

20돌 템플스테이, 미래 발전 방향 논한다

문화사업단, 10월 24일 국회서 20주년 세미나

20년 성과와 발전 방향 논의
템플스테이 세계화 방안 살펴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10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 내용은 20년을 맞은 템플스테이의 세계화로, 템플스테이가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문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음식의 발전 방향에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이규민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가 '사찰음식 성과와 미래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템플스테이 전문위원이자 망경산사 주지인 하원 스님,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김종덕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장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10월 19일까지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당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 사진전 개막식도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20주년 사진전은 10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방한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오늘까지 이어져 20주년을 맞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의 성과는 발전시켜 나가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템플스테이를 지속가능한 전통불교문화 콘텐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중 무상공 존자 사바강탄 1338주년 기념

제1회 (사)세계불교 승황성 창립 법회

- 국민 화합 세상 길 찾기 행사 -

일시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12:00시

장소 (사)세계불교 승황성 근본 도량 마강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TEL 041-832-4153 HP 010-6478-1569

주관 (사)세계불교승황성, (사)호국불교 승가회, (사)대한생활불교회

후원 호국불교 조계종, ㈜조안건설, 극락사 세종수목장, 광제당 한약방, ㈜정명산업, 지방모드

※ 전국 사부대중 수희 동참바랍니다. ※

정중 무상공 존자

(無相 : 684-762)은 신화 신문왕의 제4왕자로 728년 당에 건너가 처절한 구법행각으로 정중 보당 선파를 창립 홍인(弘忍)의 수선승단(修禪僧團)인 동산법문(東山法門)에서 방지(旁支)로 분화된 지선을(智詵)을 개조(開祖)로 하여 처적(處寂)-무상(無相)-무주(無住)-신회(神會)에 이르는 사천(四川)의 가장 큰 종파(宗派)로 종밀의 圓覺經 大疏鈔에서 정중종(淨衆宗)을 선종의 제2가(家)로 분류 하였다.
중국의 역대 2,000여 고승(高僧)가운데 실존 인물로 오백나한에 들어간 분은 동아시아의 고승 가운데는 오직 무상존자(無相尊者)만이 유일하다.
돈황석실(敦煌石室)에서 발굴된 무상오경전(無相五輕轉)과 무상어록(無相語錄)이 있으며 남조도전(南詔圖傳)과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에 무상 선사를 성인(聖人)으로 숭상하는 자료들이 남아 있다.